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위험이슈 노출과 사회자본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곽은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최진호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동섭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자의 현실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텔레비전, 인터넷, 페이스북)를 통한 위험이슈 노출 및 결속적, 교량적 사회자본이 사회적·개인적 현실 위험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염성 질병, 성범죄, 방사능 오염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위험이슈별로 미디어 유형과 사회자본에 따라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전염성 질병과 방사능 오염 이슈에 대해 교량형 사회자본은 사회적 위험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결속형 사회자본은 개인적 위험인식에 부적 영향을 보였다. 성범죄 이슈에 대해서는 결속형 사회자본이 사회적·개인적 위험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노출량과 사회자본 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위험이슈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 위험인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미디어 변인과 소셜 미디어 연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회자본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EYWORDS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현실 위험인식, 교량형 사회자본, 결속형 사회자본

* euna67@hanyang.ac.kr, 제1저자

** jinhochoi@hanyang.ac.kr, 제2저자

*** dshan27@hanyang.ac.kr, 교신저자

1. 문제제기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사적이면서 공적인 매체로 기능한다. 지인들의 일상이 공유되는 공간임과 동시에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사회적 이슈를 생성해낸다(최진호·한동섭, 2011).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의제가 생성되기도 하고 기존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대 담론이 형성되거나(김경래·나인섭, 2012) 사회운동이 조직화된다(채영길, 2014). 즉 소셜 미디어의 의제 형성력이나 과급력은 전통 미디어에 비견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위험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에 대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상에서 전염 우려에 대한 민감한 메시지가 떠돌면서 사람들의 위험인식을 높였다. 주변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해당 소식을 접하면서 에볼라가 내 주위에 있는 것 같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김태은, 2015. 6. 4). 최근 신생아의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할 수 있는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에 대한 루머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현상도 마찬가지다(임지훈, 2016. 1. 29).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 3월) 발생 직후는 물론이거니와 사고 발생 3년 반이 지난 후에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방사능 관련 루머 등 부정확한 정보가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킨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김봉수, 2015. 11. 6). 전염이나 오염과 관련 없는 범죄 이슈에서도, 인신매매를 통한 장기적출 및 인육절단 등에 대한 동영상·게시글의 확산과 잇단 성폭행 사건이 맞물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었다는 보도도 있다(백경열, 2012. 9. 21). 재난발생 시 사람들은 전통적인 미디어나 정부 등 공식기관의 정보보다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들이 생산하고 공유한 정보에 더 의존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Cho & Park, 2013).

즉 사람들은 사회적 위험상황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며, 여기서 접하는 수많은 정보나 루머를 통해 위험인식이 증폭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미디어와 유사하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는 메시지나 이슈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노출이 수용자의 현실 인식에 주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하게 한다. 류현숙과 홍승희(2015)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위험인식과 위험소통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디어 노출빈도에 따라 위험인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의 위험이슈 노출이 수용

자의 현실 위험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스미디어나 인터넷, 이메일과는 다르게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형성과 실시간적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기원선·차희원, 2012). 이는 소셜 미디어에서 메시지가 구성되고 해당 메시지를 접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현실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다. 이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획득되는 유무형의 이득으로(Coleman, 1993),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는지에 따라 얻어지는 사회자본이 달라지며, 이로써 소셜 미디어상에서 이용자가 차별적으로 메시지를 접하게 된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는 소셜 미디어 이용에 따라 차별적으로 형성되는 사회자본의 유형에 관한 것이거나(금희조, 2011; 이시내·이경렬, 2013; Brooks, Hogan, Ellison, Lampe, & Vitak, 2014), 이를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이 정치참여나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신소연·이상우, 2012; 김은이·정선영·문원기, 2015; 김은이, 2015). 상술한 바와 같이 소셜 미디어에서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사회자본이 달라지고 이로써 이용자가 차별적으로 메시지를 접하게 되는데, 해당 메시지의 전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와 관련된 인식에 영향을 받게 된다(김상현·전홍식,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이 현실 위험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위험이슈 노출이 이용자들의 현실 위험인식(사회적/개인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존 미디어와 함께 살펴본다. 이를 위해 소셜 미디어를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한정하고, 이용자의 네트워크 특성인 사회자본 변인을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많이 공유되어 이용자들이 빈번하게 접하는 위험이슈로 전염성 질병(질병), 성범죄(범죄), 방사능 오염(환경)을 선정하여 이슈별로 나누어 검증한다.

2. 이론적 논의

1) 미디어 노출과 현실 위험인식

매스미디어는 대중들이 위험 관련 정보를 접하는 주요 경로다(송해룡·조항민·이윤경·김원제, 2012). 매스미디어는 모든 위험을 보도하지 않고 위험대상을 선별하고, 선별된 위

험의 특정 측면을 선택·강조·배제함으로써 수용자들이 위험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데에 관여한다. 이를 통해 형성되는 위험인식은 위험의 크기나 발생빈도와 관계없이 보도빈도에 따라 달라진다(김영욱·이현승·이혜진·장유진, 2015).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위험메시지로 인해 수용자는 심리적 불안이나 공포, 초조함을 느끼게 된다(Bryant & Thompson, 2001).

미디어를 통한 위험이슈 노출이 위험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문화계발효과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왔다. 문화계발효과는 주로 텔레비전 시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였다. 매스미디어는 사실 혹은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시청자에게 전달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가치관이나 문화, 도덕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청자들에게 의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되고 전달되는 메시지를 실제 사실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수용자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Gerbner & Gross, 1976). 이러한 문화계발효과 연구는 다매체 시대에 들어오면서 장르나 미디어 특성을 고려하여 라디오, 신문, 인터넷, 그리고 복합적 미디어 이용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 검증되었다(이준웅·장현미, 2007; 백상기·이양환·장병희·류희립, 2011).

소셜 미디어 환경이 펼쳐지면서 수용자가 단순히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슈 생산과 확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슈를 선도해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박상호, 2012) 소셜 미디어가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Verroen, Gutteling, & De Vries, 2013; Yen, 2015). 소셜 미디어의 주요한 영향력 중 하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일어나는 소통이 실제 사회현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소셜 미디어의 여론형성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김경래·나인섭, 2012; 박상호, 2012; 김은이, 2015; 김은이·정선영·문원기, 2015).

정치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의 선거이슈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사회적/개인적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확산되어왔다. 반값 등록금, 한미 FTA 체결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적 차원의 위험 혹은 안전과 직결된 에볼라·메르스 같은 전염병 이슈, 방사능 오염 이슈 등이 소셜 미디어에서 주요 관심사로 거론되고 관련 정보가 활발하게 교류되는 모습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반의 위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공유하면서 오프라인 행동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남선아, 2012). 이는 소셜 미디어에서 교류되는 사회적 차원과 연관된 메시지가 전파력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셜 미디어는 스마트 디바이스와 결합하면서 더욱 실시간적인 소통을 가능하

게 함으로써 정보 공유와 이슈 확산을 용이하게 한다. 이는 사회위험을 인지하는 데에 소셜 미디어가 중요한 채널로서 작동하게 했으며, 공공PR과 위기관리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김진태·황성욱, 2015).

그러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구성되는 메시지는 매스미디어와 달리 수용자가 위험을 판단하는 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명확하지 않은 출처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줄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도 있다(나은영·이민영, 2015). 소셜 미디어에서 메시지 전달자나 댓글과 같은 정보가 수용자의 위험 심각성을 다르게 판단하게 만들기도 한다(Westerman, Spence, & van der Heide, 2014).

이처럼 정보 공유와 이슈 확산이 용이한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위험이슈 노출이 수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존 미디어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미디어와 위험인식: 비개인적 효과 가설과 차별적 영향 가설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위험인식은 사회 전반에 대한 위험을 의미하는 사회적 차원과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개인적 차원으로 나뉜다.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판단할 때 습득된 정보나 학습에 기초하기도 하지만, 어떤 미디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얻었는지도 중요하다. 이는 위험이슈를 전달하는 미디어에 따라 수용자들의 위험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이민영, 2011).

비개인적 효과는 사회적 위험인식과 개인적 위험인식이 서로 독립된 인지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수용자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위험 메시지는 개인적 위험이 아닌 사회적 위험을 인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Tyler & Cook, 1984; 김준홍, 2011). 이는 매스미디어가 개인화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다소 추상적이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스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메시지는 '나'보다 '남'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위험정보를 전달받게 되면 나보다 타인이 더욱 위험할 것이라는 낙관적 편향을 유발하게 된다. 반면, 위험에 대해 상세하고 생생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개인적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orton & Duck, 2001; Cho, Lee, & Chung, 2010). 즉 비개인적 효과 가설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의 정보 구성 방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사회적 위험인식과 개인적 위험인식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차별적 영향 가설은 같은 매스미디어의 범주에 있다고 할지라도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개인적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설명한다(Snyder & Rouse, 1995).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습득되는 위험이슈들이 해당 미디어

어가 띠는 특성에 따라 개인적 위험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이재신, 2012). 이는 미디어가 위험이슈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즉 위험이슈를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하는지에 따라 위험인식이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같은 정보라 하더라도 신문보다 상대적으로 더 생생하게 위험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TV뉴스는 개인적 위험인식에, 신문은 사회적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Coleman, 1993)가 이를 뒷받침한다.

즉 비개인적 효과 가설에서 설명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인 상세하고 생생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 미디어인 경우에는 개인적 위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미디어에서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루어지는 메시지의 성격, 즉 어떤 위험이슈가 선정되는지에 따라서도 사회적·개인적 위험 인식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위험인식과 위험의 종류

미디어 종류나 미디어 메시지의 구성방식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위험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위험인식은 개인의 주관적 인식으로, 이슈에 따라 개인에 의해 재구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위험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김지현·김윤경·심홍진, 2013). 따라서 위험인식을 살펴볼 때 위험이슈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와 현실 위험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질병을 이슈로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질병에 대해 미디어가 과도하고 선정적으로 다루으로써 공포감을 유발하여 위험인식을 증폭시킨다는 연구와, 반대로 미디어가 이를 통해 건강 관련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미디어의 유형과 노출량에 따라 위험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뉴스보도가 유방암이나 발암물질과 같은 위험인식과 염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Lipkua, Klein, Skinner, & Rimer, 2005; 좌보경·윤문영·백혜진, 2013)와 영화·시트콤 같은 오락적 미디어를 통한 에이즈 관련 정보 노출이 개인적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있다(Snyder & Rouse, 1995). 둘째, 새로운 미디어 등장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습득 행위의 변화에 따라 위험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수동적으로 정보에 노출되던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의학 관련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위험인식을 높였다(Case, Johnson, Andrews, Allard, & Kelly, 2004). 특히 질병의 경우 건강 관련 정보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도가 매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규·김영은, 2009; 박상희·이수영, 2011). 이는 위혐이슈에 대한 관여도로 활용되어 위혐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셋째, 질병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위험을 경험이나 지식의 유무로 나누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질병보다 잘 알지 못하는 질병의 발생과 피해 가능성을 크게 인식하였다(우형진, 2006). 만성질환과 신종 감염질환으로 질병을 분류하여, 미디어 이용이 위혐인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신종 감염질환은 미디어 이용량과 질병의 공포인식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나, 만성질환의 경우 신문 이용량이 많을수록 질병에 대한 공포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규·김영은, 2009).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정책학·언론학 등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연구들은 언론의 보도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언론이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언급한다. 심미선(2011)은 멀티미디어 환경이 성범죄 관련 정보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켜 성폭력이 일상화되었다는 인식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성범죄에 대한 미디어 보도는 개인적 차원의 위험지각보다는 사회적 차원의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개인적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지현·김윤경·심홍진, 2013). 박지선과 박상조(2013)는 11년간 살인 및 성범죄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증가한 것과 시민들의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범죄의 경우 실제 범죄발생 건수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비율이 약 7.7배 증가했으며 응답자들은 실제 범죄발생보다 약 4.5배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나타났다. 즉 성범죄에 대한 매스미디어 정보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상당히 증가시킨 것이다. 이 외에도 문화계발효과 연구에서는 TV에서 성범죄 뉴스를 많이 보도할수록 자신에게 해당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크게 인식한다는 사실이 검증되어왔다(이준웅·장현미, 2007; 손현정·이종혁, 2012).

최근 위혐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많이 다루는 이슈로는 원자력 위혐이 있다. 이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습득한 정보로 위험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한동섭·김형일, 2011). 이에 따라 선행연구들은 원자력 이슈를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그 내용을 분석하거나(김원용·이동훈, 2005; 한동섭·김형일, 2011; 최윤정, 2016), 언론보도에 따른 수용자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김영욱·이현승, 2014; 이형민·박진우·한동섭, 2015)를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와 현실 위혐인식 간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최근 소셜 미디어 등장 이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디어를 TV·인터넷·소셜 미디어로 구분하고, 위혐이슈를 전염성 질병·성범죄·

방사능 오염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슈는 최근 사회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어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된 메시지가 생산되고 공유될 가능성이 크기에 연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 소셜 미디어에서의 사회자본의 역할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연결의 결속 정도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상에서의 사회자본을 교량형(bridging)과 결속형(bonding)으로 구분한다.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에서 얻어지는 이득을 의미하는 교량형 사회자본은, 개인의 사회활동 범위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과 동질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결속형 사회자본은 개인들의 다양성은 감소되지만 더욱 깊은 유대를 바탕으로 정서적 교감을 형성한다(Putnam, 2000). 사회자본 관련 연구들은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에서는 교량형 사회자본이, 지인 위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소셜 미디어는 결속형 사회자본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신소연·이상우, 2012; 이시내·이경렬, 2013). 소셜 네트워크상에서의 관계 맺기 유형에 따라 소셜 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보원과 메시지의 종류가 달라져 이를 접하는 수용자의 인식에도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심수현, 2014; 이상돈·이수영·김군주, 2015).

기존 미디어에서 접하는 내용이 언론의 게이트키퍼(gatekeeping)에 의한 것이라면, 소셜 미디어상에서도 개인이 관계 맺은 네트워크 구성원에 의해 게이트키퍼가 된 메시지를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특성상 이용자가 정보를 접할 때 대부분 정보 전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자와 나와의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메시지 설득이 상이하게 나타난다(김상현·전홍식, 2015). 또한 사회자본 유형에 따라 전달되는 정보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정보전달 채널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한다(곽천섭·이양환, 2014). 즉 이용자가 접하는 메시지가 관계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누구와 관계 맺기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함에 있어서 메시지 내용보다, 여기서는 이용자의 관계유형과 이에 따른 사회자본을 고려하고자 한다.

사회자본 유형은 공통적으로 관계 유지 및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김종기·김진성, 2012). 반면, 사회자본 유형이 차별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은 정보공유 행위와 정치참여 등의 사회운동에서 주로 연구되어왔다. 개인 간 정보 공유행위인 피드백은 유대와 정서적으로 밀접한 결속형 사회자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alkenburg, Peter, & Shooten, 2006). 박경인과 조창환(2014)은 사회자본에 따라 페이스북 내에서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행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은이, 정선영, 그리고 문원기(2015)는 결속형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교량형 사회자본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소연과 이상우(2012)는 온오프라인 정치참여와 트위터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결속형 사회자본은 인터넷 정치참여에, 교량형 사회자본은 현실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었다. 금희조(2010)는 결속형 사회자본은 친교 활동, 교량형 사회자본은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본인의 관계 맺기 유형을 통해 획득되는 사회자본에 따라 인식이나 행위의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사회자본 유형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현실 위혐인식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동질성이 큰 결속형인 경우 접하는 메시지가 유사할 확률이 높으며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작은 교량형은 더 다양한 정보를 접할 확률이 높다(Putnam, 2000; 윤성준, 2013).

메시지의 정보원이 자신과 유사할수록 메시지에 대해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심수현, 2014), 결속형 사회자본에서는 나와 비슷한 사람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위혐을 개인적 위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다양한 정보가 교류되는 교량형 사회자본의 경우 해당 위혐을 사회적 위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유형에 따라 형성된 위혐인식이 노출량이 많아질수록 위혐인식을 증폭시킬 수 있는지, 노출량과 사회자본의 상호작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수용자의 현실 위혐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어온 미디어 변인과 소셜 미디어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사회자본 변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현실 위혐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으나, 분석대상을 대부분 하나의 미디어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많은 정보를 기존 미디어 외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하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 한정하여 살펴본 연구는 있으나, 기존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페이스북상의 현실 위험인식을 살펴볼 때, 소셜 미디어 연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회자본을 통해 검증한 연구도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수용자의 현실 위험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위험이슈를 세 가지(전염성 질병·성범죄·방사능 오염)로 분류하였다. 이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로써 페이스북 내에서 해당 위험이슈와 관련된 메시지가 생산되고 공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1: 미디어별(텔레비전/인터넷/페이스북) 위험이슈의 노출량에 따라 개인적·사회적 위험인식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2: 페이스북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은 개인적·사회적 위험인식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1: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에서 페이스북의 위험 이슈 노출량과 사회자본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가?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페이스북을 통한 위험이슈 노출이 현실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 사회조사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2015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이메일을 통해 설문URL에 접속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스크리닝 질문을 통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응답자로 한정하였다. 조사대상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고려한 층화비례할당 표집을 통해 512명의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98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257명(51.6%), 여성 241명(48.4%)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는 103명(20.7%), 30대는 119명(23.9%), 40대는 124명(27.9%), 50대는 137명(27.5%)이다($M = 40.32, SD = 11.06$).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60명(12%), 전문대졸(재학 포함) 74명(14.9%), 대졸(재학 포함) 297명(59.6%), 대학원졸(재학 포함) 67명(13.5%)이며, 소득 수준은 200만 원 미만 52명(10.4%), 200~300만 원 미만 82명(16.5%), 300~400만 원 미만 103명(20.7%), 400~500만 원 미만 113명(22.7%), 500만 원 이상 148명(29.7%)으로 나타났다.

3) 측정

(1) 미디어별 이슈 노출량

이슈 노출량은 이용자가 미디어를 통해 각 위혐이슈를 접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화계발효과 연구에서 미디어 변인을 측정할 때 전체 텔레비전 시청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나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이르면서 장르별 또는 이슈 유형별 측정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후자의 방식을 사용하여 텔레비전,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해당 위혐이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하였다. 위혐이슈에 대한 노출은 텔레비전 평균 시청량이나 인터넷 이용시간처럼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쉽게 기억되기 어려우므로 선행연구들(우형진, 2007; 나은경·김도연, 2012; 나은경, 2013)과 같이 폐쇄형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귀하는 TV(또는 인터넷, 페이스북)를 통해 메르스나 에볼라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접하십니까?’, ‘귀하는 TV(또는 인터넷, 페이스북)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접하십니까?’, ‘귀하는 TV(또는 인터넷, 페이스북)를 통해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접하십니까?’ 등 9개 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접하지 않는다, 5: 매일 접한다)로 측정하였다.

(2) 페이스북 사회자본

페이스북 사회자본은 온라인 공동체의 결속적, 교량적 속성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Williams, 2006)를 수정한 금희조(2010)의 문항을 변용하였다. 결속적 사회자본은 ‘페이스북 내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 ‘페이스북 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내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페이스북 내에서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역) 등 7개 문항을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M = 3.46$, $SD = 1.00$, $\alpha = .85$).

교량적 사회자본은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과 페이스북에서 대화하는 것이 흥미롭다’, ‘페이스북에서 나타나는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흥미를 느낀다’, ‘페이스북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내 주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게 한다’ 등 7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M = 4.06$, $SD = 1.12$, $\alpha = .92$).

(3) 현실 위혐인식

현실 위혐인식에 대해 호킨스와 핑그리(Hawkins & Pingree, 1982)는 사회전반에 해당 사

건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확률을 1차 효과, 더 범위를 좁혀 개인적 차원으로 축소한 2차 효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비개인적 영향가설은 위협인식을 개인적·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는데, 타일러와 쿡(Tyler & Cook, 1984)은 개인적 위협을 “특정 위협에 대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느끼는 것”으로, 사회적 위협을 “특정 위협이 사회 전반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느끼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에 위협이슈별로 현실 위협인식을 사회적·개인적으로 나누어 5점 척도(1: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많이 일어났다/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1)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검증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현실 위협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주요 독립변인들과 상호작용항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 <표 3>과 같이 일부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증 결과 위계적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인들 사이에 두드러진 문제는 없었다. 모든 변인의 분산팽창인자(VIF)의 범위는 기준값인 10(Cohen, Cohen, West, & Aiken, 2003)보다 작은 1.02~2.13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는 기준값인 0.1보다 작은 0.47~0.94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 독립변인들 간 상관관계(전염성 질병)

변인	1	2	3	4	5	6	7
1. TV 노출량	-						
2. 인터넷 노출량	.47**	-					
3. 페이스북 노출량	.29**	.57**	-				
4. 결속형 사회자본	.24**	.20**	.30**	-			
5. 교량형 사회자본	.26**	.26**	.36**	.61**	-		
6. 페이스북노출량×결속형	-.00 ^a	.02	-.00 ^b	-.05	-.07	-	
7. 페이스북노출량×교량형	.03	.02	-.07	-.01	-.05	.67**	-

주. N= 498.

a) -.002임.

b) -.004임.

**p < .01

표 2. 독립변인들 간 상관관계(성범죄)

변인	1	2	3	4	5	6	7
1. TV노출량	—						
2. 인터넷노출량	.45**	—					
3. 페이스북 노출량	.16**	.43**	—				
4. 결속형 사회자본	.10*	.07	.23**	—			
5. 교량형 사회자본	.18**	.20**	.32**	.61**	—		
6. 페이스북노출량×결속형	.06	-.03	-.19**	.06	-.04	—	
7. 페이스북노출량×교량형	-.02	.04	-.02	-.04	-.05	.63**	—

주. N= 498.
*p < .05. **p < .01.

표 3. 독립변인들 간 상관관계(방사능 오염)

변인	1	2	3	4	5	6	7
1. TV노출량	—						
2. 인터넷노출량	.57**	—					
3. 페이스북 노출량	.38**	.63**	—				
4. 결속형 사회자본	.20**	.17**	.30**	—			
5. 교량형 사회자본	.15**	.19**	.33**	.61**	—		
6. 페이스북노출량×결속형	.10*	-.02	-.05	.01	-.02	—	
7. 페이스북노출량×교량형	.05	.08	.08	-.03	-.02	.66**	—

주. N= 498.
*p < .05. **p < .01.

미디어별 위혐이슈 노출량, 사회자본이 사회적·개인적 위혐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위혐이슈별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투입하고 미디어 노출량(텔레비전·인터넷·페이스북), 사회자본(교량형·결속형), 페이스북 노출량과 사회자본의 상호작용항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였다.

2) 연구가설 1: 미디어별 위혐이슈 노출량이 사회적·개인적 위혐인식에 미치는 영향

〈표 4〉~〈표 6〉의 모형 1, 2는 위혐이슈의 노출이 텔레비전, 인터넷, 페이스북에 따라 사

회적·개인적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위험이슈와 미디어 유형에 따른 위험인식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텔레비전의 경우, 성범죄($\beta = .10, p < .05$) 이슈에 대한 노출이 많을수록 사회적 위험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성 질병($\beta = -.09, p < .10$)과 방사능 오염($\beta = -.10, p < .10$)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개인적 위험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즉 텔레비전에서 전염성 질병과 방사능 오염에 대해 많이 접하더라도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낙관적 편향이 나타났다.

인터넷의 경우, 성범죄($\beta = .24, p < .001$)와 방사능 오염($\beta = .21, p < .01$)에서 이슈에 대한 노출이 많을수록 사회적 위험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위험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성범죄($\beta = .14, p < .05$)와 방사능 오염($\beta = .17, p < .01$)에 대해 인터넷에서 많이 접할수록 나도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인터넷 노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이 모두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표 4.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현실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전염성 질병)

		사회적 위험				개인적 위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통제 변인	성별(남=1,여=0)	-.13**	-.14**	-.13**	-.13**	-.13**	-.12**	-.11*	-.10*
	연령	-.05	-.04	-.04	-.04	-.05	-.04	-.01	-.01
	교육수준	-.04	-.04	-.05	-.05	.04	.03	.03	.02
	소득수준	.03	.03	.03	.03	-.01	-.01	.01	.02
미디어 변인	TV 노출량		.07	.07	.07		-.09 [†]	-.07	-.07
	인터넷 노출량		.02	.01	.01		.07	.07	.07
	페이스북 노출량		.06	.05	.05		-.06	-.01	-.01
사회 자본	결속형			-.12*	-.12*			-.21***	-.21***
	교량형			.13*	.13*			.04	.03
상호 작용	페이스북 노출량×결속형				-.00 ^a				-.07
	페이스북 노출량×교량형				.02				-.02
F		2.86*	2.62*	2.74**	2.25*	2.31 [†]	2.10 [†]	3.32**	3.03**
R ²		.02	.04	.05	.05	.02	.03	.06	.06
△R ²		-	.02	.01	.00	-	.01	.03	.00

주. N= 498. 제시된 회귀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β)임.

a) -.003임.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현실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성범죄)

		사회적 위험				개인적 위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통제 변인	성별 (남=1,여=0)	-.20***	-.20***	-.19***	-.18***	-.22***	-.22***	-.20***	-.19***
	연령	-.13**	-.12**	-.10*	-.10*	-.10*	-.11*	-.07	-.08 [†]
	교육수준	-.03	-.04	-.05	-.05	-.02	-.03	-.02	-.04
	소득수준	.09*	.07	.09*	.09*	-.05	-.06	-.04	-.04
미디어 변인	TV 노출량		.10*	.10*	.10*		.03	.04	.03
	인터넷 노출량		.24***	.22***	.23***		.14*	.12*	.13*
	페이스북 노출량		-.08 [†]	-.04	-.05		-.13**	-.07	-.06
사회 자본	결속형			-.20***	-.20***			-.24***	-.26***
	교량형			.06	.06			.03	.04
상호 작용	페이스북 노출량x결속형				-.01				.10 [†]
	페이스북 노출량x교량형				-.01				-.17**
<i>F</i>		9.03***	11.58***	10.98***	8.98***	7.90***	6.44***	8.13***	7.54***
<i>R</i> ²		.07	.14	.17	.17	.06	.08	.13	.15
ΔR^2		-	.07	.03	.00	-	.02	.05	.02

주. *N* = 498. 제시된 회귀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β)임.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은 성범죄($\beta = -.08, p < .10$)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위험인식에 부적 영향을, 그리고 방사능 오염($\beta = .11, p < .05$)에서는 정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beta = -.13, p < .01$)와 방사능 오염($\beta = -.15, p < .10$) 이슈 모두 개인적 위험인식에 부적 영향을 보였다. 페이스북은 텔레비전과 마찬가지로 성범죄나 방사능 오염에 대해 많이 노출되더라도 해당 위험으로부터 본인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낙관적 편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을 통제한 후 얻은 것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은 위험이슈와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에 상관없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위험이 사회에서 발생할 빈도와 해당 위험으로부터 본인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연령은 성범죄 이슈에서만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 밖

표 6.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현실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방사능 오염)

		사회적 위험				개인적 위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통제 변인	성별(남=1,여=0)	-.12**	-.12**	-.11*	-.11**	-.22***	-.23***	-.21**	-.21***
	연령	.03	.05	.04	.04	-.05	-.04	-.02	-.02
	교육수준	.05	.03	.03	.03	-.00 ^a	.00 ^b	-.00 ^c	-.01
	소득수준	.06	.06	.06	.06	-.06	-.06	-.05	-.05
미디어 변인	TV 노출량		.05	.06	.05		-.10 [†]	-.09	-.08
	인터넷 노출량		.21**	.21**	.21**		.17**	.16*	.16*
	페이스북 노출량		.11*	.08	.08		-.15*	-.11 [†]	-.11 [†]
사회 자본	결속형			-.07	-.07			-.19**	-.19**
	교량형			.14*	.14*			.07	.07
상호 작용	페이스북 노출량x결속형				.02				-.02
	페이스북 노출량x교량형				.07				-.01
<i>F</i>		3.01*	10.27***	8.78***	7.60***	6.60***	5.37***	5.57***	4.60***
<i>R</i> ²		.02	.13	.14	.15	.05	.07	.09	.09
ΔR^2		-	.11	.01	.01	-	.02	.02	.00

주. *N* = 498. 제시된 회귀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β)임.

a) -.001임.

b) .003임.

c) -.003임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에도 소득 수준은 통제 이전에는 사회적 위험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2단계에 미디어 변인을 투입했을 때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위험인식에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정리하면, 노출량에 따른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은 미디어 유형과 위험이슈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사회적 위험인식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은 성범죄, 인터넷은 성범죄와 방사능 오염, 페이스북은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노출량과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즉, 해당 이슈의 노출량이 많을수록 해당 위험이 사회 전반적인 위험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페이스북에서 성범죄는 노출량과 부적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매스 미디어와 달리 페이스북에서 접하는 위험메시지가 객관적인 정보보다 범죄피의자의 신상 정보, 자극적인 피해사실 기술 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개인적

위험인식은 인터넷의 경우는 성범죄와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인터넷은 성범죄와 방사능오염에 대한 이슈를 많이 접할수록 본인이 해당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텔레비전은 전염성 질병과 방사능오염에, 페이스북은 성범죄와 방사능 오염에서 노출량이 많더라도 해당 위험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편향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인터넷만이 노출량이 많을수록 성범죄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다. 이는 매체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이는데, 인터넷은 텔레비전이나 페이스북과 달리 수많은 메시지를 능동적이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이용되는 특성을 띤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은 개인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쌍방향적으로 정보를 수집·습득하게 되어 인터넷이 위험인식을 증폭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정익재, 2010) 결국 인터넷을 통한 정보탐색은 곧 해당 위험이슈에 대한 노출로 연결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이 크고 이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험인식이 증폭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텔레비전과 페이스북이 개인적 위험에 대해 낙관적 편향이 일어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매스미디어일지라도 종류에 따라서 개인적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차별적 영향 가설(differential impact hypothesis)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다.

3) 연구가설 2, 연구문제 1: SNS의 사회자본과 위험인식

〈표 4〉~〈표 6〉은 페이스북에서 위험이슈의 노출과 사회자본이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페이스북상에서의 사회자본에 따른 위험인식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4〉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에 대한 것이다. 전염성 질병에 대해 결속형 사회자본은 사회적($\beta = -.12, p < .05$), 개인적($\beta = -.21, p < .001$) 위험인식에 부정 영향을 미쳤으며, 교량형 사회자본은 사회적 위험인식($\beta = .13, p < .05$)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정보가 교류되는 교량형 사회자본은 사회적 위험인식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나와 유사한 사람과의 유대를 통해 비슷한 정보가 교류되는 결속형 사회자본은 사회적·개인적 위험을 모두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전염성 질병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에 대해 페이스북 노출량과 사회자본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표 5〉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에 대한 것이다. 성범죄에 대해 결속형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는데 사회적 위험인식($\beta = -.20, p < .001$),

개인적 위험인식($\beta = -.26, p < .001$) 모두 부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페이스북 노출량과 사회자본 간 상호작용효과가 측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위험인식에서 노출량과 결속형 사회자본($\beta = .10, p < .10$)과 교량형 사회자본($\beta = -.17, p < .01$)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노출량이 많을수록 결속형 사회자본은 제한적 수준에서 개인적 위험인식을 높였으나, 교량형 사회자본은 개인적 위험인식을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 즉, 결속형 사회자본이 개인적 위험인식에 부적 영향을 주지만 노출량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개인적 위험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량형 사회자본이 개인적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량의 증가에 따라 개인적 위험인식을 낮출 수 있다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6>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에 대한 것이다. 교량형 사회자본은 사회적 위험에 정적 영향($\beta = .14, p < .05$)을 미쳤으며, 결속형 사회자본은 개인적 위험에 부적 영향($\beta = -.19,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오염은 전염성 질병처럼 사회적 위험인식을 판단할 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량형 사회자본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적 위험에 대해서는 본인과 유사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며 깊은 유대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결속형 사회자본과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방사능 오염에 대한 위험인식에서 페이스북 노출량과 사회자본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리하면, 페이스북의 사회자본과 위험이슈에 따라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점은 결속형 사회자본은 위험이슈에 관계없이 개인적 위험인식에 부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개인적 위험인식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관계 속에서 판단하되, 본인에게는 해당 위험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편향이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차이점은 위험이슈와 사회자본에 따라 사회적 위험인식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전염성 질병과 방사능 오염은 교량형 사회자본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범죄는 결속형 사회자본과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위험이슈 특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생소한 위험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량형 사회자본이 영향력이 있으며, 별도의 많은 정보가 요구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나와 가깝거나 유사한 사람들인 결속형 사회자본이 해당 위험을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출량과 사회자본 간 상호작용효과가 성범죄의 개인적 위험인식에서만 확인되었다는 다른 위험이슈와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자의 현실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를 통한 위험이슈 노출 및 결속적·교량적 사회자본이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염성 질병, 성범죄, 방사능 오염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은 미디어(텔레비전, 인터넷, 페이스북)와 이슈(전염성 질병, 성범죄, 방사능)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위험인식은 텔레비전에서는 성범죄, 인터넷은 성범죄와 방사능 오염, 페이스북은 방사능 오염에 대해 노출량과 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대체로 해당 위험이슈의 노출량이 많을수록 사회적 위험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페이스북에서 노출되는 성범죄 이슈는 사회적 위험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페이스북이 기존 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실관계에 치중하기보다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초점을 두거나 자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기술하는 데에 제약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위험인식에 대해, 인터넷은 성범죄와 방사능 오염에 대해 노출량과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텔레비전은 전염성 질병, 방사능 오염 이슈에서, 페이스북은 성범죄, 방사능 오염 이슈에서, 각각 노출량이 많더라도 위험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즉 해당 이슈를 많이 접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편향을 보인 것이다.

인터넷에서 사회적 위험인지 개인적 위험인지에 관계없이 노출량이 많을수록 위험인식이 증가하는 결과를 매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터넷은 텔레비전이나 페이스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미디어로, 인터넷에서의 정보탐색 행위가 해당 위험이슈에 대한 관여도와 연관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인식이 증폭되어 나타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개인적 위험에 대해서는, 텔레비전과 페이스북 노출량이 많더라도 해당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낙관적 편향이 나타났다. 이는 차별적 영향가설에서도 설명하듯이 미디어 종류에 따라 개인적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자본 유형이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속형 사회자본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사회적 위험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속형 사회자본은 이슈에 관계없이 개인적 위험인식에 대해 낙관적 편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험 이슈별로 살펴보면, 전염성 질병에 대해 결속형 사회자본은 사회적 위험인식에 부정 영향을, 교량형 사회자본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성 질병에 대해 결속형 사회자본이 개인적 위험인식에 대해서는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방사능 오염도 전염성 질병과 동일하게 교량형 사회자본이 사회적 위험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개인적 위험은 결속형 사회자본에 부정 영향을 주었다. 전염성 질병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 유형에 의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들 이슈는 성범죄에 비해 위험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량형 사회자본을 통해 사회적 위험인식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개인적 위험인식에 있어서는 본인과 비슷하거나 깊은 유대를 갖는 결속형 사회자본을 통해 더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범죄는 결속형 사회자본이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에 모두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와 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가 요구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는 교량형 사회자본의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결속형 사회자본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다른 위험이슈와는 다르게 사회적·개인적 위험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성범죄는 개인적 위험인식에서 페이스북 노출량과 사회자본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출량과 결속형 사회자본은 정적인 영향이, 노출량과 교량형 사회자본은 부적인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즉, 결속형 사회자본에서 성범죄에 대한 정보가 많이 노출될수록 성범죄 위험을 개인적인 위험으로 높게 인식했지만, 교량형 사회자본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정보에 많이 노출되더라도 성범죄의 위험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범죄 위험의 특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는데 다량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슈 특성 상 범죄 사실 그 자체를 접하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올리는 메시지가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속형 사회자본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자본이 소통의 채널뿐 아니라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정보의 채널로써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곽천섭·이양환, 2014). 결속형 사회자본의 경우 네트워크 동질성과 메시지 신뢰성에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질적 네트워크보다 동질적이며 유대강도가 높은 집단에서 교류되는 메시지 신뢰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박희봉·이희창·김동욱·김철수·박병래, 2003; 우관란·송희석, 2012)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의 사회자본 유형이 해당 이슈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

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 세 가지 종류의 위험이슈, 즉 전염성 질병, 성범죄, 방사능 오염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각 이슈의 특성에 따라 위험인식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염성 질병과 방사능 오염의 경우 사회적 위험인식은 결속형 사회자본에서 부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개인적 위험인식은 교량형 사회자본과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는 전염성 질병과 방사능 오염과 같이 사람들이 생소하고 낮은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을 판단함에 있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는 환경에서 위험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성범죄 이슈의 경우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 모두 결속형 사회자본에서 부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이슈의 특성상 관련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통해 각기 다른 세 가지 위험이슈 모두 개인적 위험인식에서는 결속형 사회자본의 부적인 영향이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위험을 판단할 때 본인과 비슷한 성향 또는 유대가 깊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나, 자신에게는 해당 위험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편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둘째, 소셜 미디어 특히 페이스북에서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사회자본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로 미디어 변인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페이스북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이 사회적·개인적 차원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관계 맺기 행위에 따라 메시지나 이슈가 선택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의 수용자의 위험인식을 보다 세밀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출량뿐만 아니라 사회자본과 같은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기존 미디어와 함께 소셜 미디어의 노출량에 따라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도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일정 부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가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사회자본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이슈에 따라 미디어별 사회적·개인적 위험인식이 차별적으로 나타난 이유를 심층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 향후 보다 다양한 이슈를 선정하고 세분화하여 그들 간의 차이를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다른 미디어와 차별되는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인 사회자본을

주요 변인으로 사용했으나 다른 네트워크 변인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인지된 네트워크 크기, 네트워크 동질성, 중심성 등을 추가하여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위험이슈를 전염성 질병, 성범죄, 방사능 오염으로 한정하였는데, 해당 위험에 대한 개개의 관여도나, 전달되는 메시지의 방향성 혹은 강도 등이 고려되지 않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를 지닌다. 넷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페이스북으로 한정하였다. 동일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분류되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토티 등은 페이스북과 그 특성이 상이하어 이들을 분석대상 미디어로 포함하는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곽천섭·이양환 (2014). 재난의 특성에 따른 미디어 이용과 정보 전달 채널로서의 사회적 자본: 재난 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4권 3호, 5-41.
- 금희조 (2010). 온라인 소셜 미디어와 참여적 사회 자본: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연결적 vs. 결속적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5호, 9-46.
- 금희조 (2011). 소셜 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 소셜 미디어 이용이 사회 자본과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5권 5호, 7-48.
- 기원선·차희원 (2012). 소셜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특성, 미디어 몰입 그리고 조직: 공중관계성 간 관련성. <한국언론학보>, 56권 6호, 162-195.
- 김경래·나인섭 (2012).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정책선거: 선거공론장으로서의 SNS. <인문사회과학연구>, 통권 36호, 5-30.
- 김봉수 (2015. 11. 6). 일본 원전 사고 4년여 지났지만 우리 국민 방사능 우려 여전. <세계일보>. URL: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06/20151106001398.html>
- 김상현·전홍식 (2015). 정보 전달자의 사회적 거리감, 정보원 신뢰도, 메시지의 양면성이 소비자의 설득효과에 미치는 영향: 정보 수용자의 관여도가 높은 상황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6권 8호, 35-59.
- 김영욱·이현승 (2014). 미디어 레퍼토리, 위험특성과 위험커뮤니케이션 인식이 원자력 수용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0권 4호, 1-25.
- 김영욱·이현승·이혜진·장유진 (2015).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의견형성에 관한 연구: 프로모션 기사 인식정도와 관여도에 따른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72호, 52-91.
- 김원용·이동훈 (2005). 핵폐기장 중심 원자력 관련 보도에 나타난 매체별 갈등보도의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방송학보>, 19권 4호, 168-213.
- 김은이 (2015). SNS(트위터·페이스북)가 시민·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미 비교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통권 37호, 81-113.
- 김은이·정선영·문원기 (2015). SNS, 사회자본 네트워크 유형, 그리고 정치참여: SNS(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9권 1호, 175-200.
- 김종가·김진성 (2012). SNS에서의 관계형성 정도와 개인의 정보공유 태도가 정보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화정책>, 19권 2호, 57-84.
- 김준홍 (2011).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원자력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비개인적 영향가설 검증. <한국언론학보>, 55권 6호, 254-275.
- 김지현·김윤경·심홍진 (2013). 성범죄에 대한 개인의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 2호, 342-368.
- 김진태·황성욱 (2015). SNS 상호작용성, 위기책임성, 메시지전략이 PR 공중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기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권 1호, 149-180.

- 김태은 (2015. 6. 4). 병보다 먼저 도착하는 공포에 대해. <허핑턴포스트>. URL: http://www.huffingtonpost.kr/taeeun-kim/story_b_7507932.html
- 나은경 (2013). 텔레비전 시청 장르별 시민성 및 가치관 계발 효과의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권 7호, 150-157.
- 나은경·김도연 (2012). 리얼리티 표방 TV 프로그램 장르의 문화계발 효과: 현실유사성 인식의 매개와 숙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7호, 181-201.
- 나은영·이민영 (2015). 트위터의 일본 방사능 위험 정보가 낙관적 편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권 6호, 339-362.
- 남선아 (2012). <SNS가 갈등적 사회이슈의 여론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현숙·홍승희 (2015). 소셜미디어를 통한 위험인식과 위험소통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1권 8호, 91-114.
- 박경인·조창환 (2014). SNS상의 공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용자의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5권 5호, 153-180.
- 박상호 (2012). SNS의 여론형성과정과 참여행태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8호, 55-73.
- 박상희·이수영 (2011). 질병태도와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태에 기반한 건강정보 이용자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105-133.
- 박지선·박상조 (2013). 언론의 범죄 관련 보도가 대중의 범죄 발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논총>, 8권 1호, 295-316.
- 박희봉·이희창·김동욱·김철수·박병래 (2003). 한국인의 신뢰수준 및 영향요인: 단체참여 및 개인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대인신뢰, 단체신뢰, 대중매체 신뢰. <한국정책학회보>, 12권 3호, 199-227.
- 백경열 (2012. 9. 21). 실체 없는 괴담에 “무서워 못 살겠다”. <영남일보>. URL: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20921.010070734410001>
- 백상기·이양환·장병희·류희림 (2011). LA 지역 재외동포들의 한국 뉴스미디어 노출 및 주목이 모국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 문화계발효과 검증. <한국방송학보>, 25권 6호, 332-374.
- 손현정·이종혁 (2012). 성범죄 보도가 여성 수용자의 사회적 현실인식에 미치는 영향: 2단계 문화계발 모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언론학보>, 56권 2호, 357-378.
- 송해룡·조항민·이운경·김원제 (2012).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개념화, 구조분석 및 영역 설정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10권 1호, 65-98.
- 신소연·이상우 (2012).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형성하는 사회자본 유형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권 4호, 191-232.
- 심미선 (2011). 미디어환경 변화와 성폭력행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교육>, 1권 1호, 83-114.

- 심수현 (2014). <SNS상에서 정보원의 사회적 힘과 유사성이 정보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관란·송희석 (2012). SNS에서 대인신뢰의 영향요인 : 트위터 사용자 경우. <정보기술과 데이터베이스저널>, 19권 2호, 197-215.
- 우형진 (2006). 문화계발이론의 '공명효과'(resonance effect)에 대한 재고찰: 위험인식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6호, 254-276.
- 우형진 (2007). 텔레비전 뉴스 시청이 시청자의 건강증진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308-333.
- 윤성준 (2013).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관한 네트워크적 접근. <e-비즈니스 연구>, 14권 1호, 203-224.
- 이민규·김영은 (2009). 질병 관련 인터넷 정보 이용 효과 연구: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학 연구>, 9권 4호, 506-539.
- 이민영 (2011). <미디어 형식과 위험 통제성이 수용자의 과학기술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상돈·이수영·김군주 (2015). 소셜미디어와 사회적지지 경험: 페이스북의 게시글에 대한 타 이용자의 반응유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22권 1호, 85-121.
- 이시내·이경렬 (2013). SNS 이용자들의 온라인 구전(eWoM)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적 특성, SNS 특성, 대인적 영향,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5권 4호, 273-315.
- 이재신 (2012). 미디어 형식과 위험 메시지 구성이 감정적 위험인식과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과학>, 23권 4호, 457-485.
- 이준용·장현미 (2007). 인터넷 이용이 현실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문화계발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363-391.
- 이형민·박진우·한동섭 (2015). PR커뮤니케이션의 담론 경쟁과 편향적 언론 보도 : 원자력 이슈에 대한 여론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6권 6호, 233-261.
- 임지훈 (2016. 1. 29). 공기 통해서도 전파? "감염 모기에 물렸을 때 위험". <서울경제>, 14면.
- 정익재 (2010). 인터넷 환경에서 사회 이슈 증폭 현상의 정책적 의미: 천성산원효터널공사 사례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9권 4호, 327-543.
- 좌보경·윤문영·백혜진 (2013). 미디어, 지각된 위험 특성, 위험 인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발암물질 위험 이슈를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17권 4호, 72-109.
- 채영길 (2014). 네트워크 사회운동과 SNS: Save Jeju Island (SJI) 운동사례.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5권 1호, 89-102.
- 최윤정 (2016). 우리는 평소 원자력 안전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가? <한국언론학보>, 60권 1호, 229-262.
- 최진호·한동섭 (2011). 정치인 트위터와 신문·방송뉴스의 의제 상관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1권 2호, 501-532.

한동섭·김형일 (2011). 위험과 커뮤니케이션: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신뢰성, 효용인식, 위험인식을 매개로. <한국위기관리논집>, 7권 2호, 1-22.

- Brooks, B., Hogan, B., Ellison, N., Lampe, C., & Vitak, J. (2014). Assessing structural correlates to social capital in Facebook ego networks. *Social Networks*, 38, 1-15.
- Bryant, J., & Thompson, S. (2001). *Fundamentals of Media Effects*. 배현석 (역) (2005). <미디어 효과의 기초>. 서울: 한울.
- Case, D. O., Johnson, J. D., Andrews, J. E., Allard, S. L., & Kelly, K. M. (2004). From two-step flow to the internet: The changing array of sources for genetics information seeking.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5(8), 660-669.
- Cho, H., Lee, J. S., & Chung, S. (2010). Optimistic bias about online privacy risks: Test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controllability and prior experienc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5), 987-995.
- Cho, S. E., & Park, H. W. (2013). Social media use during Japan's 2011 earthquake: How twitter transforms the locus of crisis communication. *Media International Australia*, 149(1), 28-40.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in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Eelbaum.
- Coleman, C. (1993). The influence of mass media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n societal and personal risk judgment. *Communication Research*, 20(4), 611-628.
- Gerbner, G., & Gross, L. (1976). Living with television: The violence profile. *Journal of Communication*, 26(2), 172-194.
- Hawkins, R. P., & Pingree, S. (1982). Television's influence on social reality. In D. Pearl, L. Brouthilet, & J. Lazar (Eds.), *Television and behavior: Ten year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mplications for the eighties* (Vol. 2) (pp. 224-247). Rockville, MD: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So, J., Cho, H., & Lee, J. (2011). Genre-specific media and perceptions of personal and social risk of smoking among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16(5), 533-549.
- Snyder, L. B., & Rouse, R. A. (1995). The media can have more than an impersonal impact: The case of AIDS risk perceptions and behavior. *Health Communication*, 7(2), 125-145.
- Lipkua, I., Klein, W., Skinner, C., & Rimer, B. (2005). Breast cancer risk perceptions and breast cancer worry. *Journal of Risk Research*, 8(5), 439-452.
- McQuail, D. (2005). *Mass communication theory* (5th ed.). 양승찬·이강형 (역) (2008).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파주: 나남.
- Morton, T. A., & Duck, J. M. (2001). Communication and health beliefs: Mass and interpersonal influences on perceptions of risk to self and others. *Communication Research*, 28(5), 602-626.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Y: Simon & Schuster.
- Tyler, T. R., & Cook, F. L. (1984). The mass media and judgments of risk: Distinguishing impact on personal and societal level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693-708.
- Valkenburg, P. M., Peter, I., & Shooten, A. P. (2006). Friend networking sites and their relationship to adolescents' well-being and social self-esteem.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9(5), 584-590.

- Verroen, S., Gutteling, J. M., & De Vries, P. W. (2013). Enhancing self-protective behavior: Efficacy beliefs and peer feedback in risk communication. *Risk Analysis*, *33*(7), 1252-1264.
- Westerman, D., Spence, P. R., & van der Heide, B. (2014). Social media as information source: Recency of updates and credibility of inform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9*(2), 171-183.
- Yen, C. (2015). How to unite the power of the masses?: Exploring collective stickiness intention in social network sites from the perspective of knowledge sharing.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35*(2), 118-133.

투고일자: 2016. 5. 31. 게재확정일자: 2016. 7. 18. 최종수정일자: 2016. 7. 23.

The Effect of Risk Issue Exposure and Social Capital on Risk Perception in Social Media

Eun-A Kwak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Jin-Ho Choi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Dong-Sub Han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risk perception of reality on social media. Specifically, we analyzed how exposure to risk issues through media and bridging/bonding social capital influence social and personal risk perception. Here, we categorized risk issues into infectious diseases, sex crimes, and radioactive contaminatio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effect that the type of media and social capital have on risk perception vary depending on the risk issues. Regarding issues of disease and radiation, bridging soci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risk perception whereas bonding social capital had a negative effect on personal risk perception. In the case of sex crimes, bonding social capital affected both social and personal risk perception negatively, and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exposures and social capital could be foun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onsiders both media variables from previous studies and social capital variables essential to social media studies and combines the two in order to study the factors that influence risk perception.

KEYWORDS Social Media, Facebook, Risk Perception of Reality, Social Capital